

중국 고대 分野說의 성립과정*

李文揆

포항공과대학교

Divisions of the Heaven in Ancient China

YI Moon Kyu

Pohang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ABSTRACT

In this paper, I investigate the means the ancient Chinese divided the heaven in order to explain the heavenly world. Even before the *fenya*(分野, field allocations) theory, in which the heaven was divided into 12 regions was widely adopted, there had been several systems of dividing the heaven, such as, the *jiuye*(九野) theory or the thirteen-field theory of the heaven. Paying attention to those two theories, I suggest that the geographic ideas of the ancient Chinese were reflected in their division of the heaven. In deed, the reflection was not limited to the ideas. It was the reflection of the 'physical' divisions of the earth: states(國) in Spring-Autumn and Warring-States period and provinces(州) after Qin-Han Empires.

Key Words: *Fenya*(分野) Theory, *Jiuye*(九野) Theory, *Jiuzhou*(九州), 12*ci*(次), Correlative Thought, Celestial Phenomena

* 이 글의 일부는 '태양력 시행 백주년 기념 워크샵' (천문대, 1996)에서 발표되어 "古代 東洋의 天文思想—하늘과 땅의 대응관계를 통하여—"라는 제목으로 송두중·안영숙 편집, 「한국천문력 및 고천문학」 (천문대, 1997), 105-131쪽에 실렸던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임.

1. 머리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과학문화재의 하나로 꼽히는 ‘天象列次分野地圖’는 고구려 천문도의 전통을 계승하여 조선 초에 제작된 천문도로 널리 알려져 있다.¹⁾ 太祖 4(1395)년 書雲觀의 주도 아래 가로 122.5cm, 세로 211cm의 검은색 돌에 새겨진 천상열차분야지도에는 총 1467개의 별이 포함되어 있다.²⁾ 주지하듯이 천상열차분야지도란 명칭은 우리 나라의 천문도에만 보이는 독특한 이름으로,³⁾ 그것은 하늘의 모습(天象)을 次와 分野를 통해 나타내주는 그림이라는 뜻이다. 여기에서 ‘次’와 ‘分野’란 하늘을 시간적·공간적으로 12개의 영역으로 구분하는 동양 전통 천문학의 독특한 개념이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次와 分野로써 하늘의 세계를 인식하는 방법은 과연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그리고 그것은 어떤 의미를 지니는 것인가? 이 글에서는 바로 이러한 물음에 답하기 위해 중국 고대 분야설의 성립과정을 밝혀보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먼저 분야설의 초기 형태라고 할 수 있는 九野說에 대해 살펴보면서 그것이 九州說과 대응되는 체계임을 지적할 것이다. 이어서 漢代 이후 나타나는 13분야설과 12분야설의 체계에 대해서 검토하면서 분야설이 다양한 모습으로 여러 단계를 거쳐 성립되었음을 보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국 천문학의 독특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분야설이 실제 천문현상을 해석할 때, 어떻게 적용되었는가 하는 점을 몇 가지 사례를 통해 검토할 것이다.

-
- 1) 천상열차분야지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여러 다양한 측면에서 상당히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 가운데 비교적 최근에 발표된 것으로는 박명순, “天象列次分野地圖에 대한 고찰”, 『한국과학사학회지』 제17권 제1호 (1995), 3-38쪽; 나일성, “천상열차분야지도와 각석 600주년 기념 복원”, 『東方學志』 제93집 (1996), 41-132쪽; 박창범, “天象列次分野地圖의 별그림 분석”, 『한국과학사학회지』 제20권 제2호 (1998), 113-149쪽 등을 들 수 있다.
 - 2) 천상열차분야지도에 들어 있는 별의 갯수에 대해서는 1463개, 1464개 등이 제시되기도 했지만, 최근 정확히 1467개의 별이 표시되어 있다는 점이 나일성, “천상열차분야지도와 각석 600주년 기념 복원”, 72쪽에서 지적되었고, 박창범, “天象列次分野地圖의 별그림 분석”, 120-121쪽도 이를 확인하였다.
 - 3) 이와 관련하여 중국의 역대 천문도를 소개하고 있는 陳遵媯, 『中國天文學史』 第二冊 (明文書局, 1985), 第19章 “星圖” 부분을 참고할 것. 한편, 이미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17세기 일본에서 만들어진 ‘天象列次之圖’, ‘天文分野之圖’는 그 이름에서도 분명히 드러나듯 天象列次分野地圖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2. 九野說과 九州의 관념

고대 중국인들은 하늘의 세계를 몇 개의 영역으로 나누어서 이해하였다. 그리고 그것은 일차적으로 하늘의 세계 특히 별자리를 기술하기 위한 편의성 때문이었다. 즉, 하늘에 보이는 하나의 별이나 별자리가 정확히 어느 위치에 있는가를 표시하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史記」 <天官書>에서와 같이 하늘을 중앙, 동, 서, 남, 북의 5개의 영역으로 나누어서 설명하는 방법이 나타나기도 하였으며, 「步天歌」 이후 '3垣 28宿' 체계를 사용하여 별과 별자리를 기술하는 체계가 제시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와는 다른 측면에서 고대 중국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의 관념 즉, 하늘의 세계를 객관적 대상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항상 지상의 세계와 관련지어 이해하려는 경향에 따라 그들은 땅의 영토를 분할하듯이 하늘의 세계도 몇 개의 영역으로 구획지어 설명하고자 하였다. 다시 말하면 주체로서의 인간이 그들의 외부환경인 하늘의 세계와 땅의 세계를 통일적으로 바라보는 관념 — 天-人-地를 '상관적'(correlative)⁴⁾ 또는 '유기적'(organic)⁵⁾으로 파악하려는 관념 — 에 따라 땅 위의 세계가 춘추전국시기에서와 같이 몇 개의 나라로 나뉘어져 있거나, 진한제국 이후에서와 같이 몇 개의 행정구역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처럼 하늘의 세계도 그렇게 구획하고자 하였다.

하늘을 구획하는 방법으로 가장 먼저 체계화된 형태로 나타난 것은 이른바 '九野說'이라고 할 수 있다. 구야설이란 하늘을 9개의 영역(野)으로 나누는 방법으로 「呂氏春秋」 <有始覽>에 소개되어 있는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 1>과 같다.

이처럼 「역서춘추」의 구야설은 하늘을 중앙과 주위의 여덟 방위에 따라 9개의 영역으로 나누고, 각각에 28수를 배당한 것이다. 사실 이 내용은 28수의 명칭이 처음으로 완전하게 소개된 문헌자료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⁶⁾ 하지만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28수를 배당하

4) 중국인들에게 보이는 '상관적 사고'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들을 참고할 수 있다. A. C. Graham, *Yin-Yang and the Nature of Correlative Thinking* (Singapore: The Institute of East Asian Philosophies, 1986)은 일반적인 논의이고, John B. Henderson, *The Development and Decline of Chinese Cosmology*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4)와 John S. Major, *Heaven and Earth in Early Han Thought*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1993), 그리고 Benzamin I. Schwartz, *The World of Thought in Ancient China* (Harvard University Press, 1985), 350-382쪽은 특히 중국인들이 하늘의 세계를 이해할 때 나타나는 '상관적 사고'에 관한 논의이다.

5) 중국의 과학사상을 '유기적'이라고 표현하는 대표적인 사람으로는 Needham을 꼽을 수 있다. Joseph Needham, *Science and Civilisation in China* vol 2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56), 특히 339-497쪽을 참고할 것.

<표 1> 「呂氏春秋」의 九野說

九野	鈞天	蒼天	變天	玄天	幽天	顓天	朱天	炎天	陽天
방향	中央	東	東北	北	西北	西	西南	南	東南
28수	角 亢 氏	房 心 尾	箕 斗 牽牛	婺女 虛 危 營室	東壁 圭 婁	胃 昂 畢	觜 參 東井	輿 鬼 柳 七星	張 翼 轸

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먼저 28수를 하늘의 9개의 영역에 각기 3개씩 배당하면 1수가 남게 되는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것을 「여씨춘추」에서는 북쪽에 있는 玄天에만 유독 4수를 배당함으로써 해결하였다.⁷⁾ 그러나 보다 심각한 문제는 28수가 동, 서, 남, 북, 동북, 서북, 서남, 동남의 여덟 방향 이외에 중앙의 鈞天에도 배당된 데 있다. 28수는 본래 하늘의 적도 혹은 황도 주위에 있는 주요한 별자리로서⁸⁾ 하늘의 중심부가 아닌 주변부에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여씨춘추」의 구아설에서는 28수 가운데 角, 亢, 氏 3개의 별자리를 중앙에도 배속하였다. 이에 대해 清代의 고증학자 洪頤煊은 角, 亢, 氏가 斗杓로부터 가장 가깝기 때문에 하늘의 가운데에 배당한 것이라고 설명하였지만,⁹⁾ 이것은 기본적으로 28수 모두를 9개로 나눈 하늘 어느 곳엔 가에 배당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실제로 하늘의 가운데에 있지도 않는 별자리가 중앙에 있는 하늘인 鈞天에도 배당된 것이다. 결국 이런 문제들은 「사기」 <천관서> 이후 하늘을 중앙과 사방으로 나누고 28수를 자연스럽게 사방에만 배치되게 함으로써 해결되게 되는데, 이런 점으로 보아 「여씨춘추」나 그 체계를 거의 그대로 채용한 「淮南子」 <天文訓>

6) 물론 28宿 체계는 「呂氏春秋」보다 훨씬 이전에 형성되었다. 일례로 1978년 河北省 曾侯乙墓에서 출토된 칠기상자뚜껑은 기원전 5세기 후반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 위에 이미 28수의 거의 완전한 이름이 보인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王建民·梁柱·王勝利, “曾侯乙墓出土的二十八宿青龍白虎圖象”, 「文物」1979年 第7期, 40-45쪽, 또는 李勇, “再論‘曾侯乙墓出土的二十八宿青龍白虎圖象’”, 「中國天文學史文集」, 第6集 (1994), 282-292쪽을 참고할 것.

7) 陳遵媯, 「中國天文學史」, 第二冊, 178쪽은 「呂氏春秋」에서 북쪽의 하늘에만 특별히 4개의 별자리를 배당한 이유를 북극이 북쪽에 있으므로 특히 그쪽을 중시한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8) 28宿가 적도를 기준으로 한 별자리인가 또는 황도를 기준으로 삼은 별자리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陳遵媯, 「中國天文學史」, 第二冊, 62-65쪽을 참고할 것.

9) 洪頤煊, 「讀書叢錄」, “二十八宿皆隨斗杓所指而言. 角亢氏離斗杓最近 故古法以此三星爲中央天”. 이 내용은 陳奇猷 校釋, 「呂氏春秋校釋」(上海: 學林出版社, 1984), 662쪽, 註 (10)에서 재인용한 것임.

의 구야설¹⁰⁾은 아직 하늘을 구분하고 그것에 28수를 적당하게 배열하는 방법을 확립하지 못한 단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여씨춘추」에서 구야설을 설명하면서 “하늘에는 九野가 있고 땅에는 九州가 있다”¹¹⁾라고 한 것이나 하늘의 九野를 말하고 곧이어 땅의 九州에 대해 설명한 것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듯이, 하늘을 9개의 영역으로 나누는 九野說은 땅을 9개의 지역으로 구분하는 이른바 ‘九州說’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다만 구야설과 구주설 가운데 어느 하나가 먼저 등장한 것인지 또는 하늘과 땅을 9개로 나누는 관념이 비슷한 시기에 형성된 것인지, 그 선후관계나 영향관계는 분명하지 않다.¹²⁾

「여씨춘추」에서 말하는 구주란 豫州, 冀州, 兗州, 青州, 徐州, 揚州, 荊州, 雍州, 幽州로, 아래의 <표 2>에서 보듯이 이것은 대체로 禹貢의 九州¹³⁾에 해당한다.¹⁴⁾ 다만 禹貢의 구주에서는 堯시기의 중심지였던 冀州를 시작으로 삼은 데 비해,¹⁵⁾ 「여씨춘추」에서는 洛陽이 속해 있는 豫州를 처음으로 꼽고 있다. 또한 禹貢의 구주에는 梁州가 들어 있지만, 「여씨춘추」는 그 대신 幽州가 들어 있다. 이는 필시 「여씨춘추」가 戰國시대의 실상을 반영한 결과일 것이다. 당시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燕나라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강국이었기 때문이다. 豫州를 시작으로 한 것 역시 洛陽이 땅의 중심, 즉 土中이라는 전국시기의 관념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10) 위에서 언급한 「呂氏春秋·有始覽」의 九野說은 ‘顯天’이 ‘昊天’으로 되어 있고, ‘嫫女’가 ‘須女’로 바뀌었을 뿐, 「淮南子·天文訓」(劉文典 撰, 「淮南鴻烈集解」, 中華書局, 1989), 87-88쪽에도 그대로 나와 있다.

11) 「呂氏春秋」〈有始覽〉, 657쪽, “天有九野 地有九州”.

12) 九州說이 처음으로 나오는 「尚書」(十三經注疏本)〈禹貢〉, 146-150쪽을 보면 九州에 대한 설명만 들어 있고 九野에 대한 언급은 들어 있지 않는 것으로 보아 九州의 관념이 먼저 형성되었다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周禮」(十三經注疏本)〈春官·保章氏〉, 819쪽에서는 “掌天星 以志星辰日月之變動 以觀天下之遷 辨其吉凶. 以星土辨九州之地所封 封域皆有分星 以觀妖祥 ……”(밑줄은 인용자 강조)이라 하여 마치 天象을 보고 땅의 지역을 나눈 것처럼 설명하기도 하였다.

13) 禹貢의 九州에 대한 설명은 「史記」(中華書局 標點校勘本, 이하 正史는 모두 같은 책에서 인용)〈夏本紀〉, 51-75쪽에도 들어 있는데, 그것들의 위치에 대해서는 <그림 1>과 高橋庸一郎, “「夏本紀」と九州(上·下)”, 「阪南論集」人文·自然科學編 26-3·4 (1991)에서 각각 1-13, 9-26쪽을 참고할 것.

14) 이밖에 九州說은 「周禮」〈夏官·職方氏〉, 862-863쪽과 「爾雅」(十三經注疏本)〈釋地〉, 2614쪽에도 나온다. 하지만 그것들은 戰國초기 즉 禹貢의 구주설과 「呂氏春秋」의 구주설 사이에 형성된 것으로 보이며(楊子六, 「中國歷代地方行政區劃」(中華文化出版事業委員會, 1957), 5쪽), 分野說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찾을 수 없으므로 여기에서는 직접 언급하지 않는다.

15) 「史記」〈夏本紀〉, 52쪽에서 禹의 治水사업이 冀州에서 먼저 시작되었다고 한 것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수 있다.

이에 비해 「淮南子」 <墜形訓>에서 설명하는 구주는 아주 다르다.¹⁶⁾ 즉, 「회남자」에서는 구주로 神州, 次州, 戎州, 兪州, 冀州, 台州, 涿州, 薄州, 陽州를 들고 있는데, 일단 구주를 지칭하는 이름이 禹貢의 구주나 「여씨춘추」의 구주와 아주 다른 것이 눈에 뜨인다. 하지만 「회남자」의 구주설이 보여주는 가장 큰 특징은 구주를 각각의 방위에 따라 정확하게 배속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설정함으로써 땅의 구주가 하늘의 구야와 더 잘 들어맞게 되었다(표 3 참조). 실제 우공의 구주나 「여씨춘추」의 구주는 정확하게 방위에 따라 나눈 것이 아니라 땅의 지형을 고려하여 나눈 것이기 때문에(그림 1 참조) 하늘의 九野와 직접 일대일로 대응되지는 못한다.¹⁷⁾ 그와 같은 문제가 「회남자」에서는 해결된 셈이다.

<표 2> 「尙書」 <禹貢>과 「呂氏春秋」 <有始覽>의 九州說

尙書 禹貢	九州	冀州	兗州	青州	徐州	揚州	荊州	豫州	梁州	雍州
呂氏春秋 有始覽	九州	豫州	冀州	兗州	青州	徐州	揚州	荊州	雍州	幽州
	國	周	晉	衛	齊	魯	越	楚	秦	燕
	位置	河漢 之間	兩河 之間	河濟 之間	東方	泗上	東南	南方	西方	北方

한편, 우공의 구주에 대한 설명은 구주를 열거하면서 단지 그에 대한 지리적인 설명을 덧붙이는 것만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에 비해 「여씨춘추」는 구주를 열거하면서 그 지역에 해당하는 나라의 이름을 함께 병기하였다. 그러나 「회남자」의 구주에는 지리적인 설명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여씨춘추」가 전국시대 각 지역의 國名을 열거한 것은 여러 나라가 할거하고 있는 당시의 戰國적인 모습을 반영하려고 한 결과이며, 「회남자」에서 그 점을 말하지 않은 것 역시 당시의 시대적 변화 때문이었다. 즉, 「회남자」가 등장하는 前漢 무렵이면 땅의 세계에 대한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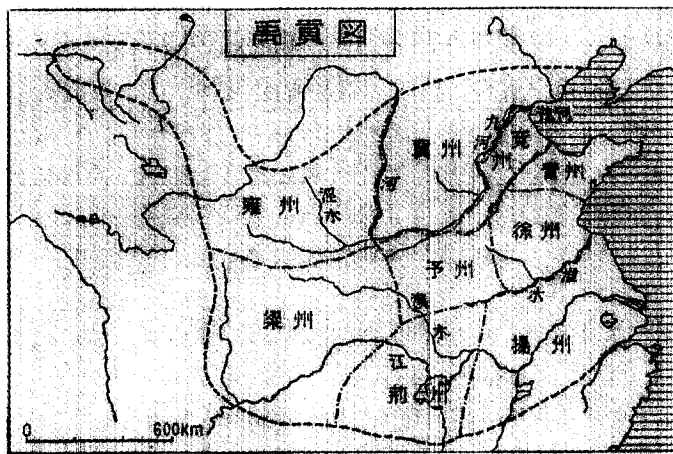
16) 「淮南子」 「墜形訓」, 130-131쪽.

17) 이런 점에서 <표 2>에 나타나 있듯이, 「呂氏春秋」에서도 九州의 위치를 설명하면서 5개의 州는 방위를 밝힌 데 비해, 豫州, 冀州, 兗州, 徐州의 경우에는 직접 방위를 언급하지 않고 지리적인 설명으로 대신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표 3> 「淮南子」의 九州說과 九野說

방위		東南	正南	西南	正西	中央	西北	正北	東北	正東
九州說	九州	神州	次州	戎州	兗州	冀州	台州	沛州	薄州	陽州
	土	農土	沃土	滔土	并土	中土	肥土	成土	隱土	中土
九野說	九野	陽天	炎天	朱天	昊天	鈞天	幽天	玄天	變天	蒼天
	28宿	張翼軫	輿鬼柳七星	觜參東井	胃昂畢	角亢氐	東壁奎婁	須女虛危營室	箕斗牽牛	房心尾

<그림 1> 禹貢의 九州圖



출전: 「アジア歴史事典」 1 (平凡社, 1959), 325쪽의 禹貢 항목

국인의 관념이 여러 나라가 병존하고 있는 戰國적인 상태를 벗어나서 전 중국을 하나로 묶어 낼 수 있는 통일제국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담아내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¹⁸⁾ 「회남자」는 구주를

18) 薄井俊二, “中國古代の地理思想の思想史的研究—「淮南子」地形訓と「漢書」地理志について—”, 「中國—社會と文化」 第4号 (1989), 294-300쪽에서도 이와 같은 漢代의 지리적 관념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각 나라에 연결시키는 대신 그것을 토지의 비옥도, 즉 농작물의 생산성과 연결지어 설명하였다. 이 역시 통일제국의 성립에 따라 사회 전체의 생산력에 보다 많은 관심이 두어졌다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이처럼 땅을 9개의 영역으로 분할하는 구주설은 禹貢의 九州說에서 비롯하여 「여씨춘추」와 「회남자」로 이어지면서 고대 중국인들의 관념 속에 자연스럽게 자리잡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전국시대 騶衍에 의해 제기된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大九州說’¹⁹⁾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구주설의 대체적인 내용은 흔히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던 중국은 천하의 81분의 1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과 중국은 ‘赤縣神州’라고 부르며 그 안에는 또 구주가 있어서 그것이 바로 禹貢이 말하는 구주에 해당한다는 것이다.²⁰⁾ 이와 같은 대구주의 관념은 기존의 구주설을 대체하면서 漢代 이후 땅의 세계에 대한 고대 중국인들의 인식을 새롭게 하였다. 즉, 전통적으로 받아들여졌던 九州는 사실 小九州에 지나지 않으며 실제 천하는 그런 小九州가 모여서 이루어진 大九州라는 보다 확대된 지리적 세계관을 형성하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하늘에 대한 관념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구야설이 구주설과 대응된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런 관념이 지속적으로 남아 있다고 한다면, 땅에 대한 대구주설에 해당하는 하늘에 대한 대구야설과 같은 관념이 제시될 법도 하다. 그러나 그런 관념은 나타나지 않았다. 하늘을 9개의 영역으로 나누어 설명하는 체계는 「회남자」 이후에도 「尙書考靈曜」²¹⁾나 「太玄經」²²⁾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靈憲」에서도 “하늘에는 9개의 자리가 있고 땅에는 9개의 영역

19) 「史記」〈孟子荀卿列傳〉, 2343쪽, “以爲儒者所謂中國者 於天下乃八十一分居其一分耳. 中國名曰赤縣神州. 赤縣神州內自有九州 禹之序九州是也 不得爲州數. 中國外如赤縣神州者九 乃所謂九州也. ……”. 大九州說은 또한 王充, 「論衡」(黃暉 撰, 「論衡校釋」, 中華書局, 1990), 〈談天〉, 473-482쪽에도 들어 있다.

20) 한편, 대구주설에서 말하는 중국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단적으로 ‘赤縣神州’가 하나의 州 이름인지 또는 ‘赤縣의 神州’로 보아 赤縣이란 州 안에 또 9개의 州가 있어서 그 중 하나가 神州인지 분명하지 않다. 만약 ‘赤縣神州’로 해석하고 중국을 赤縣神州로 보면 중국이 천하의 1/9 이 되고 ‘赤縣의 神州’로 해석하여 중국은 神州에 해당한다고 하면 중국은 천하의 1/81이 된다. 이런 논의와 관련하여 安居香山·中村璋八, 「緯書의 基礎的研究」(漢魏文化研究會, 1966), 201-217쪽, 또는 鍾肇鵬, 「識緯論略」(遼寧教育出版社, 1991), 223-224쪽을 참고할 것.

21) 「尙書考靈曜」(黃奭 輯, 「尙書緯」, 上海古籍出版社, 1993), 10쪽, “天有九野 九千九百九十九隅 去地五億萬里 何謂九野. 中央鈞天 其星角亢, 東方曜天 其星房心, 東北變天 其星斗箕, 北方元[玄]天 其星須女, 西北幽天 其星奎婁, 西方成天 其星胃昂, 西南朱天 其星參狼, 南方赤天 其星輿鬼柳, 東南陽天 其星張翼轸”. 이 내용은 「呂氏春秋」와 유사하지만 불완전한 형태의 九野說이라고 할 수 있다.

22) 楊雄, 「太玄經」(鄭萬耕 校釋, 「太玄校釋」, 北京師範大學出版社, 1989), 289쪽, “九天一爲中天, 二爲羨天 三爲從天 四爲更天 五爲昧天 六爲廓天 七爲咸天 八爲沉天 九爲成天”. 그러나 이것은 하늘에 대

이 있다”²³⁾고 한 것으로 보아 九野의 관념은 남아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영헌」에서 ‘赤縣之州’라는 표현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 대구주설을 고려하고 있는 듯도 하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大九野적인 관념은 보이지 않는다. 심지어 「사기」〈천관서〉에서는 구야설조차도 나타나지 않는다. 결국 땅에 대한 관념이 九州에서 大九州로 확대되어 가는 것에 비해 하늘에 대한 관념은 구야설에서 더 이상 확대되지 않았으며, 구야설조차도 한편으로는 점차 희미해져 갔다고 할 수 있겠다.

3. 分野說의 성립

1) 漢代의 13分野說

九野와 九州로 하늘과 땅을 9개의 영역으로 나누어 대응시키는 방법은 점차 사라져갔지만, 그 안에 담겨 있는 기본적인 관념, 즉 하늘의 세계를 땅의 세계와 관련지어 이해하려는 관념은 지속되었다. 다시 말하면 하늘과 땅을 9개의 영역으로 나누는 것에는 얼마이지 않고 다른 형태로 하늘과 땅을 대응시키게 되었다. 먼저 살펴볼 것은 하늘의 28수를 땅 위의 각 지역에 따라 배당하여 늘어놓는 방법이다. 이런 방법은 「회남자」〈천문훈〉을 비롯하여,²⁴⁾ 「사기」〈천관서〉나 「한서」〈지리지〉 등의 한대 문헌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아래의 <표 4>는 그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이 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이전의 구야설이나 구주설과는 달리 하늘과 땅을 각각 13개의 영역으로 나누어 대응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이 하늘을 13개의 영역으로 나누는 이른바 ‘13분야설’은 기본적으로 구야설을 포기한 것이다.²⁵⁾ 하지만 이것은 구야설에서처럼 하늘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분할이 아니라 단지 28수만을 대상으로 하여 그것을 13개의 부분으로 나눈 것에 불과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하늘과 땅을

한 묘사가 아니라 일년 사계절의 변화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周桂鈿, 「中國古人論天」(新華出版社, 1991), 25쪽.

23) 「靈憲」(文淵閣四庫全書, 臺灣商務印書館 景印 第1397冊), 277쪽, “天有九位 地有九域”.

24) 이미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淮南子」〈天文訓〉에는 구야설, 〈墜形訓〉에는 구주설이 소개되어 있다. 그럼에도 〈天文訓〉에서 또 다른 방법으로 하늘의 28宿와 땅을 연결시키고 있다. 이것으로 보아 「淮南子」〈天文訓〉에는 하늘의 세계를 인식함에 있어서 최소한 서로 다른 두 가지 이상의 관념이 들어 있다고 하겠다.

25) 이런 점에서 일찍이 小島祐馬는 前漢時代에는 소위 ‘13分野說’이 지배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 小島祐馬, “分野と古代支那人の信仰”, 「東方學報」第6冊 (1936), 6쪽.

연결지어 이해하려는 구야설의 관념은 유지하면서도 28수의 일부를 중앙에 배당해야 하는 어색함이 없어지게 되었던 것이다.

<표 4> 漢代の 13分野說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淮南子	天文訓	角亢	氐房心	尾箕	斗牽牛	須女	虛危	營室東壁	奎婁	胃昂畢	觜參	東井輿鬼	柳七星張	翼軫
	地名	鄭	宋	燕	越	吳	齊	衛	魯	魏	趙	秦	周	楚
史記	天官書	角亢氐	房心	尾箕	斗	牽牛婺女	虛危	營室東壁	奎婁胃	昂畢	觜參	東井輿鬼	柳七星張	翼軫
	地域	兗州	豫州	幽州	江湖	揚州	青州	并州	徐州	冀州	益州	雍州	三河	荊州
漢書	순서	4	9	6	13	12	7	10	8	5	2	1	3	11
	28宿	角亢氐	房心	尾箕	牽牛婺女	斗	虛危	營室東壁	奎婁	昂畢	觜參	東井輿鬼	柳七星張	翼軫
	分野	韓	宋	燕	粵	吳	齊	衛	魯	趙	魏	秦	周	楚

한편, 13분야설에서 하늘과 대응되는 땅을 표시하는 방법도 일정하지 않다. 즉, 「회남자」와 「한서」에서는 28수를 전국시기에 존재했던 각 나라와 대응시키고 있다.²⁶⁾ 이에 비해 「사기」에서는 당시 사용하던 실제 행정구역과 연결시켰다. 기원전 106년 漢武帝가 刺史를 설치하고 전국을 13개의 州로 나눈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²⁷⁾ 그리고 「漢書」 <地理志>의 서술 순서

26) 「淮南子」에서 鄭나라가 「漢書」에서는 韓나라로 바뀌었지만 그것은 동일한 지역을 가리킨다. 그러나 趙나라와 魏나라는 서로 바뀌어 있다.

27) 이 점은 이미 五井直弘, 「漢書地理志の一考察」, 中國古代史研究會編, 「中國古代史研究」第一(吉川弘文館, 1960), 376-377쪽에서도 지적한 바 있다.

에서 드러나듯이, 「한서」에서는 28수의 순서에 얽매이지 않았으며, 또한 (魯나라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 胃宿가 빠져 있기도 하다.

13분야설의 또 다른 특징으로 28수를 분류하는 데에도 각각의 문헌마다 다소의 차이가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회남자」에서는 角과 亢을 하나로 묶어 鄭나라에 대응시켰으며, 氐, 房, 心을 하나로 묶어 宋나라에 대응시키고 있다. 이에 비해 「사기」와 「한서」에서는 角, 亢, 氐를 함께 묶고, 房, 心을 하나로 묶었다. 그리고 그것을 「사기」에서는 兗州와 豫州, 「한서」에서는 韓과 宋나라에 대응시켰다. 또한 「회남자」에서는 奎, 婁를 魯나라에 대응시키고, 胃, 昴, 畢을 함께 묶어 魏나라에 대응시켰다. 이에 비해 「사기」에서는 奎, 婁, 胃와 昴, 畢을 각각 徐州와 冀州에 대응시켰고, 「한서」에서는 奎, 婁와 昴, 畢을 각각 魯와 趙나라에 대응시키고 있다. 그리고 「회남자」에서는 斗와 牽牛가 越나라에 須女는 吳나라에 배당되어 있는데, 「한서」에서는 斗가 吳나라에 牽牛와 婺女(須女에 해당됨)가 粵(越)나라에 속해 있기도 하다.

이처럼 漢代에도 하늘과 땅을 연결하여 이해하는 소위 ‘상관적 사고(correlative thought)’가 널리 존재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구야설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하늘과 땅을 전체적으로 연관지으려는 것은 아니었으며, 단지 하늘에 있는 28수를 통해 하늘과 땅을 연결짓는 방식이었다.

2) 12次와 12分野說

28수를 통해 하늘과 땅의 세계를 대응시키려는 관념이 천문학적으로 보다 정교화되어 나타난 것이 12次를 이용한 分野說이다. 이것을 일반적으로 중국의 分野說이라고 하며, 천상열차분야지도에도 들어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12분야설 체계이다.²⁸⁾ 12분야설은 唐代에 편찬된 「晉書」 <天文志> 또는 「開元占經」에서 체계적으로 등장하며 <표 5>는 그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이것을 보면 앞의 <표 4>와는 달리 하늘을 13개의 영역으로 나누지 않고, 12개의 분야로 나누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연결도 단순히 하늘의 28수와 땅의 연결을 넘어서 그것들을 12次, 12辰 등과도 연결짓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 이전까지의 구야설이나 13분야설이 하늘의 세계를 공간적으로만 구획하였던 것에서 나아가 시간적으로도 구획하는 방법이 마련된 것이다.

하늘을 12개로 나눈 것은 오늘날 목성에 해당하는 歲星의 운행주기가 약 12년에 해당한다는 것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이다. 이것은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세성의 운행이 농사와 깊은 관련이

28) 天象列次分野地圖의 12次와 12分野 체계는 기본적으로 「晉書」 <天文志>의 체계와 같다(표 5 참조). 다만 申 방위의 분야가 「晉書」에는 ‘魏’로 표시되어 있는 것에 비해, 천상열차분야지도의 도설에는 ‘晉’으로 되어 있으며 가운데 부분의 천문도 주위에는 ‘晉’과 함께 ‘魏’도 표시되어 있다.

있다는 믿음이나 또는 일년을 12달로 나눈 것과 관련되어 있다. 또한 堯가 12州를 정한 것에 도²⁹⁾ 부합되는 체계라고 할 수 있다. 12次란 대략 12년을 주기로 하여 세성이 해마다 각기 다

<표 5> 12分野說

		1	2	3	4	5	6	7	8	9	10	11	12
晉書·天文志	28宿	角亢氐	房心	尾箕	斗牽牛須女	虛危	營室東壁	奎婁胃	昂畢	觜參	東井輿鬼	柳七星張	翼軫
	12次	壽星	大火	析木	星紀	玄枵	諏訾	降婁	大梁	實沈	鶉首	鶉火	鶉尾
	12辰	辰	卯	寅	丑	子	亥	戌	酉	申	未	午	巳
	分野	鄭	宋	燕	吳越	齊	衛	魯	趙	魏	秦	周	楚
	地域	兗州	豫州	幽州	揚州	青州	并州	徐州	冀州	益州	雍州	三輔	荊州
開元占經	28宿	角亢	氐房心	尾箕	南斗牽牛	須女虛	危室壁	奎婁	胃昂	畢觜參	東井輿鬼	柳七星張	翼軫
	12次	壽星	大火	析木	星紀	玄枵	諏訾	降婁	大梁	實沈	鶉首	鶉火	鶉尾
	12辰	辰	卯	寅	丑	子	亥	戌	酉	申	未	午	巳
	分野	鄭(韓)	宋	燕	吳越	齊	衛	魯	趙	魏	秦	周	楚
	地域	兗州	豫州	幽州	揚州	青州	并州	徐州	冀州	益州	雍州	三河	荊州
	月	3월	(2월)	(1월)	12월	11월	10월	9월	8월	7월	(6월)	5월	(4월)

29) 「尙書」 <堯典>, 128쪽, “肇十有二州 封十有二山”.

른 위치에 나타나는 것을 표시하기 위한 것이다.³⁰⁾ 12辰은 12支를 방위에 따라 늘어 놓은 것인데, 특이한 점은 그 방향이 세성의 운행방향과 반대라는 것이다. 즉, 세성은 서에서 동으로 운행(右行)하고 그에 따라 12차가 시계방향으로 배열되어 있는 데 비해, 12진은 시계반대방향으로 배열되어 있다.

이는 당시 天帝가 타는 수레라고 여겨졌던 북두칠성의 자루 부분(斗柄)의 일주운동과 방향이 일치하는데,³¹⁾ 세성과 같은 주기를 가지지만 반대방향으로 운행하는 가상의 천체(歲陰)를 상정한 결과이다. 결국 12차를 이용한 분야설은 하늘의 세계와 지상의 세계를 상관적으로 이해하는 전통적인 관념이 漢代 이후 세성을 매개로 하여 정립된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³²⁾

한편, 28수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하늘에 있는 전체 별들을 대상으로 삼아 하늘을 구획지어 설명하는 방법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사기」〈천관서〉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하늘을 중앙과 동서남북의 5宮으로 구분지어 설명하는 방법이 바로 그것이다. 이렇게 하늘을 5개의 영역으로 나누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당시 유행하던 五行사상의 영향으로 볼 수도 있다.³³⁾ 하지만 그것은 특히 중앙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황제를 중심으로 하는 중앙지배체제가 자리잡는 당시의 상황에서 통치지역을 京師와 四方으로 구분하던 전통적인 관념이 강조된 결과로 이해된다.³⁴⁾ 나아가 하늘을 중앙과 八方으로 구획했던 九野說의 관념이 중앙과 四方의 구분으로 변형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³⁵⁾ 이런 점에서 당시 중국인들의 사유체계 속에 폭넓게 자리잡고 있었던 중국과 사방의 이민족을 구분하였던 中華思想,³⁶⁾ 특히 華夷觀念의 표출이라는 관점에

30) 12次의 완전한 명칭은 「漢書」〈律曆志〉, 1005-1007쪽에 처음으로 나온다. 그 이전에 비록 단편적이거나 12次의 구체적인 명칭이 등장하는 것은 오직 「左傳」과 「國語」뿐이다(陳遵媯, 「中國天文學史」, 第二冊, 167-168쪽). 한편, 「史記」〈天官書〉에도 비록 12次의 이름이 직접 사용되지는 않았지만, 그 관념은 분명히 들어 있었다.

31) 陳遵媯, 「中國天文學史」, 第二冊, 171쪽.

32) 陳遵媯는 12支를 사용하여 歲陰의 위치를 표시하는 관념은 대략 戰國에서 秦漢시기에 형성된 것으로 보고 있지만(陳遵媯, 「中國天文學史」, 第二冊, 171쪽), 그런 관념이 分野說로 체계화된 것은 漢代 이후의 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3) 大崎正次, 「中國の星座の歴史」(雄山閣, 1987), 32쪽, 또는 陳遵媯, 「中國天文學史」, 第二冊, 5쪽.

34) 예를 들어 「春秋公羊傳」(十三經注疏本), 2219쪽, 桓公 9年, “京師者何 天子之居也. 京者何 大也. 師者何 衆也. 天子之居 必以衆大之”와 같은 표현에서 京師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관념을 볼 수 있다. 한편, 「尚書」〈禹貢〉, 153쪽에 나오는 소위 ‘五服’이론 역시 땅을 5개의 영역으로 나누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중앙을 중심으로 하여 九州 바깥의 지역을 그 떨어진 거리에 따라 구분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말하는 五方의 분류체계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

35) 艾蘭, “亞形與殷人的宇宙觀”, 「中國文化」, 第4期 (1991), 31-47쪽에서는 어떻게 하늘을 중앙과 사방으로 나누어 인식하는 관념이 이미 殷代에도 널리 존재하고 있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³⁷⁾

「사기」 <천관서>의 하늘에 대한 구획은 하늘 전체에 대한 구분이었다는 점에서 구야설과 같은 맥락으로 보이는 측면도 있다. 하지만 28수 뿐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모든 별들을 대상으로 삼았던 것은 구야설과는 다른 모습이었으며, 이후 전체 하늘에 대한 구획은 항상 그 안에 있는 모든 별들을 고려하여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 「晉書」나 「隋書」의 <天文志>에서는 하늘의 별자리를 中宮, 四方의 28宿, 28宿外星으로 분류하는 방법이 사용되었으며, 「개원점경」에서는 먼저 28수를 묘사하고 이어서 石氏, 甘氏, 巫咸氏를 좇아 中宮과 外宮으로 나누는 방법이 사용되었다. 그리고 「보천가」에 이르면 '3垣 28宿' 체계가 등장하여 이후 중국천문학에서 하늘의 별 및 별자리들을 설명하는 기본적인 틀이 되었다.³⁸⁾

4. 分野說의 적용

하늘의 세계와 땅의 세계를 대응시켜 이해하려는 관념을 바탕으로 형성된 분야설은 직접적으로 실제 고대 중국인들이 하늘의 변화를 인간사와 관련지어 해석하는 경우에 적용되었다. 아래에서 그에 관한 몇 가지 사례들을 검토할 것인데, 그에 앞서 먼저 분야설의 체계가 등장하기 이전의 기록을 살펴보자. 「春秋左傳」에는 昭公 7년(기원전 535)의 일식이 衛나라에서 시작되어 魯나라에까지 이르렀으므로 衛나라는 큰 재앙을 당해 君主가 영향을 받고 魯나라는 작은 재앙을 당해 上卿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해석되었으며,³⁹⁾ 文公 14년(기원전 613)의 혜성출현은 7년 이내에 宋과 齊와 魯나라의 군주가 亂으로 죽을 것이라고 해석되었다.⁴⁰⁾ 물론 이런 예에서 분야설을 통한 천문현상의 해석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를 찾을 수는 없다. 하지만 일식이나 혜성이 하늘의 특정한 구역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그것이 땅 위의 특정한 나라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해석되었을 가능성을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분야설의 체계가 완전하게 성립되기 이전에도 이미 고대 중국인들의 사유체계 속에는 하늘의 세계와 땅 위의 세계

36) 「中華思想」에 대해서는 李成珪, 「中華思想과 民族主義」, 「哲學」 제37집 (1992), 31-67쪽 및 그 글의 註 5)에 소개되어 있는 연구성과들을 참고할 수 있다.

37) 이와 관련하여 東-蒼龍, 北-玄武, 西-白虎, 南-朱雀으로 연결되는 四象(四神)체계가 고대 중국의 해당 지역에 거주하던 각 민족들의 토tem숭배에서 기원했을 가능성을 주장하는 陳久金, 「華夏族群的圖騰崇拜與四象概念的形成」, 「自然科學史研究」 제11卷 第1期, 9-22쪽은 시사하는 바가 있다.

38) 중국의 별자리 분류체계에 대해서는 大崎正次, 「中國の星座の分類體系—特に中宮と外宮について—」, 「中國の星座の歴史」, 205-209쪽과 陳遵媿, 「中國天文學史」 第二冊의 해당부분을 참고할 것.

39) 「春秋左傳」(十三經注疏本), 2048-2049쪽.

40) 같은 책, 1853쪽.

를 연결짓는 관념이 널리 자리잡고 있었으며, 이러한 관념이 분야설로 이어지게 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분야설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漢代 이후의 기록에서는 보다 직접적으로 분야설이 천문현상의 해석에 적용되었던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劉邦이 天命을 받을 조짐으로 받아들여졌던 漢 高祖 원년(기원전 206) 10월 오행성이 東井에서 모였던 현상에 대해 「한서」 <천문지>는 “張耳라고 불리우는客이 ‘東井은 秦나라의 땅이다. 漢王이 秦에 들어갔으며 五星이 歲星을 따라 모였으니 마땅히 義로써 천하를 얻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⁴¹⁾는 기록이 있다. 앞의 <표 4>에서 보듯이, 漢代의 13분야설에서 東井은 秦의 분야에 속하므로 이와 같이 해석되었던 것이다.

또 다른 예로 漢 文帝 後2(기원전 162)년 喪死와 寇亂의 조짐으로 받아들여졌던 7월의 熒惑이 동쪽으로 운행하다가 畢宿의 남쪽을 지나 역행하여 昴宿에 이르렀던 현상과 병사를 써서 일을 도모하면 반드시 재앙을 당하거나 크게 패할 것으로 받아들여졌던 11월의 填星과 辰星이 危宿에서 모였던 현상에서, 畢宿와 昴宿는 趙의 분야로 危宿는 齊의 분야로 해석되었다.⁴²⁾ 이 사례 역시 당시의 13분야설의 체계에 들어 맞는다. 하지만 畢宿와 昴宿가 「한서」에서는 趙의 분야로 되어 있지만, 「회남자」에서는 魏의 분야에 속한다는 점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한서」 <지리지>의 13분야설이 적용되었던 경우인 셈이다. 앞 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분야설은 각 시대와 문헌마다 다소의 차이가 있다. 때문에 분야설이 천문현상의 해석에 적용될 경우에도 어떤 체계를 따르고 있는가에 따라 그 해석이 달라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와 같이 분야설은 ‘天文’이라고 불렸던 중국인들의 하늘의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의 기초가 되었다.⁴³⁾ 하지만 모든 천문현상을 해석할 때, 항상 분야설이 적용되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일차적으로 고대 중국에서 발생했던 많은 천문 현상들이 그것들이 일어난 분야가 직접 언급되어 있지 않은 채 기록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예는 분야가 직접 언급되었지만, 분야설은 적용되지 않았던 경우이다. 즉, 「한서」 <천문지>는 漢 高祖 7(기원전 200)년 달 무리가 발생하여 參宿와 畢宿를 7점으로 둘러쌌던 현상을 해석하면서, ‘昴는 匈奴에 해당하고, 參은 趙에 해당하며, 畢은 변방의 병사에 해당한다’고 하였다.⁴⁴⁾ 이 가운데 분야설을 제대로 따르고 있는 것은 參宿가 趙의 분야에 해당한다고 한 것 뿐이다. 昴宿와 畢宿의 경우 분야설을

41) 「漢書」 <天文志>, 1301쪽, “客謂張耳曰 東井秦地 漢王入秦 五星從歲星聚 當以義取天下”.

42) 같은 책, 1303쪽.

43) 고대 중국의 天文 해석의 기본적인 원칙에 대해서는 李文揆, “古代 中國 ‘天文’ 解釋의 原理—「史記」 <天官書>를 중심으로—”, 「東亞文化」 第35輯 (1997년 12월), 69-123쪽을 참고할 것.

44) 「漢書」 <天文志>, 1302쪽.

따르지 않고 상대적인 위치를 고려하여, 북쪽에 있는 昴宿를 북쪽 오랑개인 흉노, 남쪽에 있는 畢宿를 중국으로 해석하였던 것이다.

다음과 같은 後漢시기의 일식에 관한 예 역시 직접적으로 분야와 연결지을 수 있는 28수가 언급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야설이 적용되지 않았던 경우이다. 즉, 光武帝 建武 16(기원후 40)년, 章帝 建初 6(81)년, 安帝 永初 원년(107)의 일식은 각각 해가 昴7度和 翼6度 그리고 胃2度에 위치하고 있을 때 일어났는데, 光武帝 때의 일식은 당시 직무에 태만했던 각 군의 太守 10여명을 감옥에 가두어 죽인 일로, 章帝 때의 일식은 이후 東平王이 來朝하게 된 일로, 그리고 安帝 때의 일식은 큰 흉수로 농사에 피해를 입게 되어 공간이 비게 된 일로 풀이되었다.⁴⁵⁾ 이런 현상들이 만약 분야설을 따랐다면, 昴宿는 趙, 翼宿는 楚, 胃宿는 魯의 지역과 연결되어 해석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후한서」 <五行志>는 이것들을 昴宿는 獄事, 翼宿는 遠客, 胃宿는 공간(廩倉)을 의미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해석하였다. 또한 魏 明帝 青龍 2(234)년 3월 달이 輿鬼를 가렸던 현상도 輿鬼가 속한 秦 지역의 일로 해석되지 않고, 輿鬼가 상징하는 의미인 斬殺에 따라 ‘사람들이 많이 병에 걸리며 나라에 우환이 있을 것’으로 해석되었다.⁴⁶⁾ 이처럼 28수가 분야설을 따르지 않고 해석되는 경향은 「후한서」 이후 크게 늘어나게 되었다. 이는 「한서」 이전에는 천문현상을 해석하면서 주로 28수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별자리들은 위치, 즉 분야를 표시해주는 데 주로 이용된 것에 비해, 「후한서」 이후에는 별자리 자체가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가 크게 중시되었기 때문이다.⁴⁷⁾ 결국 분야설은 하늘의 천문현상을 해석할 때 제한적으로 적용되었던 것이다.

5. 맺음말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하늘의 세계와 땅 위의 세계를 통일적으로 바라보는 관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고대 중국의 분야설은 몇 가지 단계를 거쳐 성립되었다. 그리고 분야설은 비록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실제 천문현상을 해석할 경우에도 적용되었다. 분야설의 관념은 아주 오래된 것으로 여겨지지만, 그것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여씨춘추」의 구야설이라고 할 수 있다. 구야설은 전체 하늘을 대상으로 하면서 28수를 매개로 하여 하늘을 9개의

45) 「後漢書」 <五行志>, 3359-3363쪽. 한편, 翼宿가 遠客을, 胃宿가 공간(天倉)을 상징한다고 하는 해석은 「史記」 <天官書>에도 나오지만, 昴宿가 獄事に 해당한다고 하는 것은 「晉書」 <天文志>에 이르러야 나온다.

46) 「晉書」 <天文志>, 362쪽.

47)李文揆, “고대 중국인의 하늘에 대한 천문학적 이해—漢代 ‘天文學’體系の 형성 및 展開過程—”(서울 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7), 170쪽.

영역으로 나누고, 그것을 땅 위의 구주에 대응시키는 방법이었다. 이와 같은 28수를 통한 구야설은 한대의 13분야설로 나아갔으며, 이후 「진서」 <천문지>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12차를 이용한 12분야설로 정착되었다. 그리고 이 체계가 천상열차분야지도에도 반영되었던 것이다.⁴⁸⁾ 한편, 구야설의 전체 하늘을 대상으로 하여 하늘의 세계를 구획짓는 방법은 이후 28수 뿐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모든 별을 대상으로 하는 「사기」 <천관서>의 5궁 체계로 이어졌으며, 마침내 「보천가」의 3垣 28宿 체계로 전개되었다. 이러한 체계 역시 기본적으로는 하늘과 땅을 대응시키려는 관념에서 출발하였지만, 점차 하늘의 별 또는 별자리를 기술하기 위한 목적을 강하게 띠게 되었다.

그렇다면 고대 중국인들은 어떤 이유에서 하늘의 세계를 구분하면서 그것을 땅 위의 세계와 대응시키려는 일에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을까 하는 문제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질문은 중요한 것이지만, 현재로서는 명확한 답을 찾기는 매우 어렵다. 따라서 여기서는 한가지 추론적인 형태로 나의 생각을 제시하는 것으로 그치겠다. 잠시 서양천문학에 눈을 돌려본다면 고대 서양인들은 중국인들과는 달리 하늘의 세계를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 이해하면서 그것을 땅 위의 세계와 대응시켜 이해하려는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⁴⁹⁾ 이는 필시 기독교적 세계관이 자리잡았을 때는 물론이고 그 이전의 그리스·헬레니즘 시대에도 하늘의 세계, 곧 우주를 신에 의해 만들어진 조화롭고 완전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만약 땅 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하늘의 세계를 신의 세계로 여기면서 그 세계를 완전한 세계로 받아들이고 있었다면, 사람들은 신성하고 영원한 세계인 하늘 그 자체를 하나의 대상으로만 이해하였을 것이다.⁵⁰⁾ 그에 따라 하늘을 몇 개의 구역으로 나눌 필요가 없었을 것이고, 그것을 굳이 자신들의 세계와 직접 대응시켜 설명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반면에 중국인들 역시 하늘을 포함하여 세계 전체, 즉 우주가 하나의 통일된 질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바라보고 있었지만, 그들에게 하늘의 세계는 지상의 세계와 차원을 달리하는 신의 세

48) 물론 대관령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천상열차분야지도에는 320여 개에 달하는 우리 나라의 지명이 들어 있기도 하지만(南文鉉·韓永浩, “朝鮮地名이 있는 「天象列次分野地圖」 사본”, 『東方學志』 제93집 (1996), 133-158쪽), 그것 역시 12분야설의 기본적인 틀을 벗어난 것은 아니다.

49) 고대 서양에서 9중천 등을 말하는 것은 중국에서 보이는 것과 같은 하늘의 세계를 평면적으로 분할하는 방식은 아니다. 그것은 맨 바깥쪽의 항성천구를 비롯하여 여러 행성들이 각기 다른 층으로 늘어서 있는 것을 설명하는 방법이었다.

50) Liba Chaia Taub, *Ptolemy's Universe: The Natural Philosophical and Ethical Foundations of Ptolemy's Astronomy* (Illinois: Open Court, 1993), 135-153쪽은 고대 서양인들이 하늘을 신성하고 영원한 세계로 받아들였으며, 바로 그런 관념이 실제 천문학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말하고 있다.

계가 아니라 바로 자신들이 살아가고 있는 땅의 세계와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따라서 땅의 세계를 지리적으로 분할하듯 하늘의 세계도 몇 개의 영역으로 분할하였던 것이다. 이처럼 하늘과 땅의 대응관계를 바탕으로 한 분야설은 중국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독특한 관념의 소산인 것이며, 나아가 그것은 중국인들이 하늘의 세계와 그 곳에서 일어나는 여러 현상들을 해석하는 경우에도 적용되었던 중국 천문학의 특징적인 모습이었던 것이다.